

[이사람-사진작가 구본창]"서민의 탈·백자 항아리...'한국적 美' 렌즈에 담죠"

December 22, 2018 | 조상인 기자

page 1 of 2





국제갤러리 부산점 개관전 앞둔 시진작가 구본창

시진작가의 스튜디오라고 했을 때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 반짝이는 최신 장비들, 도시적 차이를 등을 떠올리는 것은 반쯤은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상남이 분당구의 대로에서 조금 벗어나 구불구불한 뒷골목을 따라 올라간 이매동 작업실. 집 뒷 초가을과 나와 있던 시진작가 구본창(65·사진)이 나그네 숙곳을 밟고도 활짝 열려준 그의 작업실은, 작업실이라기보다 박물관에 가까웠다. 오래된 선반기와 낡고 닳은 자구본, 녹슬고 목직판 열쇠고리, 낡은 인형과 장갑... 잘 꾸민 예디스틱하고 몽환주의의 비스무리한 듯한 가구들도 나를 웃겼다. ‘말까지’ 취급을 받던 한국 말을 문화 정체성의 한 양면의 아름다움을 비취 백자 등을 감상하고 경탄하는 방식을 새삼 소개해 준다. 비스무리한 것들에서 뽀얀 가치를 찾아내는 구본창의 소중함 시선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삶 곳곳에서 모으고 쌓은 물건들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새삼 준비해온 ‘청화백자’와 ‘제기’ 연작을 본격적으로 처음 선보이는 국제갤러리 부산점의 개관전을 앞두고 본문을 그를 통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남들이 애정을 갖지 않는 것에 더 큰 애정을 쏟는 일은, 더듬어보지 않을 것. 애정을 더 깊어오. 평범한 것이지만 소중해. 제, 애정과 정성을 기울인 물건들이 드래프트라는 힘과 매력에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제 상자에 있던 제 장갑은 코닥 본사가 미국 르네상스의 백화시장에서 샀어요. 제과와 도란 경향이 느껴졌거든요. 다만의 백화시장에서 본 작은 책장이 선택은 안 판

다걸고 그냥 왔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찾아서 사온 물건입니다. 값어치보다 중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데, 저 안에 될 줄도 어떻게 찍을지는 아직 고민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사라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이런 물건을 보존하는 이유는, 어쩌면 희망 같아요.”

“
대학 졸업후 대기업 입사했지만
이렇게 평생 살고싶지 않다 생각
1년 만에 회사 그만두고 독유학
푸른 빛에 물든 청화백자 사진 등
독창적 미감으로 해외서 큰 호평

남미·태 등 황금유물 촬영 예정
단출한 목기도 멋지게 찍고 싶어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작가로서 그가 가진 재능이라면 재능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의 눈에 들면 단숨에 작품이 된다. 말이 그렇고, 비누가 그랬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저녁마다 손 씻으며 잡고 싶어진 비누조각리를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게 명작이 됐다. 때 묻어 갈라진 하얀 반구에서 영물만 건져서 물을 발견하고 초록과 분홍의 바탕에서 에메랄드 같고 수정 같은 영물함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보면 구본창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 3남3녀 중차장자로 무난하고 평범하며 맑은 일을 갈망하며 잘 해내던 그랬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당시 국내 최고 기업인 대우산업에 입사한 그가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과 ‘목일로 떠

He is -
▲1953년 서울 ▲1975년 연세대 경영학과 ▲1980-85년 독일 함부르크 조형 미술대학 사진·디자인 전공 디플롬 ▲1986-1998년 중앙대 사진학과 강의 ▲1992년 함부르크 국제미술아카데미 초청교수 ▲1999-2001년 개원예대 사진전공 교수 ▲2000년 제회 이명종상 수상 ▲2001년 삼성미술관 로댕갤러리 개관전 ▲2002년 미국 퍼피드 에베스트유물 개관전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 개관전 ▲2004년 프랑스 갤러리 카페라 플스 큐라 개관전 ▲2006년 일본 교토 기하쓰키미술관 개관전 ▲2007년 고은사진미술관 개관전 ▲2008년 개관전 ▲2008년 대구 사진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2010년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개관전 ▲2014년 제13회 동경사진상 수상 ▲2000-2015년 박진희문화재단 이사장 ▲201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미술 부문 대통령 표창 ▲2010년-경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

나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던 차에 썼다는 옮겨 목일주재원으로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진 전공의 유학생활이 시작됐다. 모병서-엘리트모병서 같은 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다양한 공부와 경험 끝에 그의 관심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되돌아왔다. 특히 말 못하는, 오래된 물건들 아름다움에 관해.
“말도 못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죠. 하층계급 사람들이 평소 입 밖으로 못 내던 말을 꺼낸 건 그나마만큼은 실컷 풀어놓 수 있었으니까요. 강릉 관노거리극이나 가산오대라는 인물 해탈이나 분산탈춤에 비해 덜 알려진 막에 옛날, 손맛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영감이 갖는 사진들이 나올 수 있었죠.”

그 결과 이전까지는 한국적 관광상품의 대명사 이던 말에 한국적 정서가 담기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부터 찍기 시작한 백자도 마찬가지다. 한 외국인 여성이 커다란 백자 달항아리 옆에 앉아 있는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본 뒤로 “그 백자가 먼 이국땅에서 구매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후 세수 유수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백자 컬렉션을 촬영해왔다. “화려한 장자에 비해 백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강간기·도상봉 정도를 제외하면 백자를 다루는 작가도, 전시도 많지 않았죠. 백자를 보고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은 만큼, 눈여겨보지 않은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3년여간 5개국, 16개 박물관을 다니며 한국 백자들을 사진에 담았다. 사람의 불을 어루만지고 숨결을 느끼며 그린 초상화처럼 그의 백자는 살아 있는 듯하다. 초현실주의 사진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이 백자를 새삼 새롭게 발견했다. 규방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삼양된 여성의 신상을 담은 핑크톤의 작품, 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흑색 사진은 한국의 미(美)로 특색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연중 거의 항상 외국 여단가의 미술관이 나 갤러리에서 그의 전시가 열리는 이유다.

그러다 청화백자에 다다랐다.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푸른 빛에 물들다’라는 전시를 계기로 조선 청화백자 구본창의 눈에 들어왔다. 청색을 내는 푸른 안료 고가의 수인공예였기에 초창기 청화백자는 왕실의 전유물이었다. 처음 수종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도공과 화공은 귀한 자료를 다루는 일이라 견뎌야 했다. “우리 청화백자에는 섬세하고 조소스런 느낌이 있어요. 얇고 작고 정교한 중국 청화백자, 조형적이고 세밀한 일본 청화백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귀한 안료를 아껴 쓰려는 조소스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화공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파란색이 얼룩 얼룩이었어요. 다른 나라 값싼 안료 색을 칠하던 것만으로도 남았습디. 그 귀여움과 조소스런 마음이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상황과 태도의 실마를 읽을 수 있죠.”

바려진 시간, 오래된 가치에 감복하는 작가는

사진작가는 애뜻한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대상에 대한 헌금으로 카우고 인간 보편의 감정을 읽어내는 삶의 통찰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또 꿈을 준다. “나중에는 목기를 찍고 싶어요. 소문은 찍은 적이 있지만 단출한 목기를 세계에 내놓을 만큼 멋지게 찍고 싶어 유망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황금 유물들을 찍고 싶어요. 그들은 어떻게 비손한 시기에 팔라왔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흘러가면 좋겠어요. 청동기 때부터 여러 형태로 사용된 그 황금명량이 정금했는데, 국내 박물관은 신중한 편이라 신라 유물을 아직 못 찍은 게 남미의 박물관에서 먼저 찍었고, 호주의 금광 지역, 리마-페루를 거쳐 마드리드의 고고학박물관 등에서 황금유물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황금도 구본창이 찍으니 화려한 반짝임보다 세공과정의 두드러짐이 더 잘 보인다. 다들 귀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 것에 대한 구본창의 집념과도 같다. /성남·조성근기자 ccs@sedaily.com 사진·송은기자



시진작가 구본창이 조선시대 한에서 사용했던 청화백자 용문항아리를 촬영한 작품. '013년 촬영하고 있다. 작가는 도자기 소장자인 원본 교도 이즈백물관으로 찾아가 찍었다. /송은기자

“고운 면에 감싸인 도자기...자연의 아름다움 생생히 표현”

작업실 인터뷰 미공개작 감상 기회
개원전 열리는 부산 수영구 'F1963'
넉은 공작 개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이 작품 어때요? 도자기가 보이나요?”
작업실에서 인터뷰는 미공개작 혹은 비공개작 작품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구본창 작가가 소개한 의외의 작품은 먼 바지에 둘러싸인, 그리

하여 백자인지 청자인지 도자기 형태도 알 수 없는 미공개작이었다.
“박물관에 유물 촬영을 요청하고 싶어서 수장고에서 조선시대까지 보여주세요. 어떻게 고운 면에 감싸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마저 아름다워서 이대로 촬영했습니다.”
경복에 싸인 각지럼 사진 한 장으로 이 도자기를 아끼고 간직해온 개인 소장자의 애정이 엿보인다. 이렇게 의외의 장면이 작품이 되는가 하면

의외의 전시장이 작품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 14일 개막해 내년 2월까지 구본창 개인전이 열리는 부산 수영구구 복합문화공간 F1963이 그렇다. 이곳은 고려재민이 반세기 이상 살아온 생선하는 공장과 창고로 사용된 곳이다. 세련된 미술작품은 물론 문화체험 등 유물들도 걸리던 면 곳이었다. 하지만 낡은 공장은 버려지지만, 개조되지는 않은 채 세월의 흔적을 최대한 간직해 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F1963은 2011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눈길을 끌었고 국제갤러리는 8월 첫 분관으로 이곳에 부산점을 열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거러키며 ‘한때 도예가들이 만든 것처럼 백유처럼 깨끗한 도자기는 매력 을 느끼지 못했’지만 “세상이 흐른 느낌, 손때 묻거나 굵한 자국만이 존재하게 느껴지는 것을 먼저 찍었다”고 했고 그런 작품들은 예술적으로 새 함께 태어난 옛 공장과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다. /조성근기자